

11학년들이 겨울방학과 봄에 해야 할 일들

이제는 11학년 차례이다. 지금 11학년들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입시 전선의 최전방에 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1학년들에게 대학입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11학년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이번 겨울방학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 독서에 매진하라

독서와 글쓰기는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다. 이는 독서를 해야 학교 성적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밥을 먹어야 기초 체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독서를 해야 기초 학력이 유지된다. 거기에 글쓰기는 학습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성적이 향상되거나 SAT, ACT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는 쉽지 않다. SAT 고득점은 결코 학원에 다닌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SAT는 독서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시험의 성격이 그렇다. 유일한 해법은 독서이다. SAT, ACT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 독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7년부터 새롭게 바뀐 SAT는 더욱 독서 능력을 요구한다. 기존의 ACT 시험도 고득점을 얻기 위해 독서가 필수적이다. 고득점의 관건은 독해 능력과 독해 속도이다. 미국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분당 600-1000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독해 속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독서능력지수(렉사일 지수, 미국 교육 연구 기관 'Meramerrics사'에서 개발한 독서능력 평가지수)로 볼 때 1330 렉사일이 요구된다.



■ SAT 시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2020년 전반기에 있을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준비 상황에 따라 언제 시험을 볼지 결정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한다.

■ PSAT 점수를 보고 전략을 세워라

여기에 맞춰 지원할 목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 PSAT 시험과 SAT 시험은 매우 연관성이 높다. 어느 날 점수가 갑자기 오를 수 없다. 따라서 내 성적의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는가를 보고 목표대학을 세워야 한다.

아마 아직 꿈의 대학, 즉 Dream college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꿈도 높아지니까. 본인의 생각과 더불어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카운슬러의 의견도 들어본다. 많은 정보가 축적된 미래교육연구소 같은 전문 컨설팅터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하라

책을 사서 풀어보기를 하는 동시에 신문 잡지 등을 읽어 이해력을 높이는 훈련과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사전 준비가 없이는 고득점을 얻을 수 없다.

■ AP 시험도 대비하라

AP 테스트는 미국 대학 입학 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성적이다. 더 많은 AP를 듣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AP 테스트도 볼 수 있을 만큼 본다.

■ 희망 대학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의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고교 3년간의 GPA와 SAT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 톱5 희망 대학을 정하고 각 대학별 입시 규정을 정리한다. 조기전형과 일반전형 지원서 마감일, 제출 서류,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둔다. 톱5 대학을 정한 뒤에는 캠퍼스 투어를 다녀오면 좋다. 현재 거주지에서 다소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라면 '플라이 인(Fly-in) 캠퍼스 투어'를 신청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료, 숙박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플라이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플라이인' 지원 자격과 프로그램 일정이 다른 만큼 본인이 정한 톱5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GPA를 챙겨라

아무리 특별한 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성적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대학이건 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내신 성적이다. 과거 9-10학년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11학년 성적, 특히 2학기 성적을 올리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대학입시에서 에세이, 추천서, 특별활동 그 어떤 것도 성적을 대신하지 못한다.

■ 특별활동에서 리더십을 보여라

특별활동은 상위권 대학 합격에 결정적 요소다. 지원 학생 거의 모두가 비슷한 학업적 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액티비티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잡다한 나열식 액티비티가 아닌 리더십 등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 리더십은 가장 중요하다. 액티비티를 하되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학생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